



Raonatti 13 Thailand Team Final Report



[CONTENTS]

1. Intrduce About Raonatti 13 & Ymca
2. Chiangmai Activity
3. Chiangrai Acrivity
4. Homestay Life
5. The last **5months** for Me?

0 Introduce Thai Team

We are Raonatti 13



Kim Jiwon

Thai-name : Dong-keaw

Meaning : **pure mind** and **cheery**



Kimlee Dajeong

Thai-name: Sompor

Meaning: **patient** and **beautiful**

0

Introduce Thai Team

We are Raonatti 13



Jung gunhwi

Thai-name: ko-Son

Meaning: **Fortune & Progress**



Kim Juhyeon

Thai-name : Boon-nark

Meaning : **Great & Protection**

0

Our Home Sankampeng YMCA



0

Our Home

Sankampeng YMCA



1

About Love Coffee



Love Coffee 운영을 통한 네 가지 F!

Step 1. For the Farmer, Organic Farm의 운영과 발전을 도모!

Step 2. For the poor people, 수익의 10%는 가난한 사람들과 환자들에게 환원!

Step 3. For the local people,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친구를 맺는 따뜻한 공간!

Step 4. For the earth, 화학 비료나 기타 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



활동 설명

태국 도착 4일째 되던날 JKY 스쿨 학생들과 함께 'Welcome Party'가 열렸다.
학생들은 각자 춤, 노래 등을 선보였고 우리는 한국 전통 사물놀이 공연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다같이 한바탕 즐긴 뒤에는 러브커피 카페에 모여 음료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2

Welcome Party
2015. 03 (치앙마이)



태국팀이 느낀점은?

다들 처음이라 낯가림이 정말 많았다.
그러다 갑자기 한국노래가 나오면서 한명 두명, 들썹 들썹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다같이 한바탕 신나게 놀고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앞으로도 계속 만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밖에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많이 아쉬웠다.



3 고산지대 생활 - 체험편 2015. 03 (치앙마이)

활동 설명

태국에 와서 처음으로 1박2일 동안 밖으로 나가서 생활했던 일정. 태국 왕실에서 주관하는 "로열프로젝트"를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체험 할수 있었고, 이런 프로젝트와 관련된 딸기농장 및 마을에서 운영하는 커피팜 방문하여 마을사람들이 어떻게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지에 대해 배울수 있었던 일정.



3 고산지대 생활 - 체험편
2015. 03 (치앙마이)

로얄 프로젝트란?

이 사업들은 초기 'Royal Hill Tribe Project'로 명명되다가 현재는 '**Royal Projects**'로 명명되고 있다. 이는 국왕과 왕비가 개인적으로 실행하는 프로젝트들로 태국 북부의 고산족들로 하여금 자연의 지속성을 파괴하는 화전농법에서 벗어나게 하고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협이 되는 아편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을 통해 왕실은 고산족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한 현금작물을 연구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농지개간, 교육, 보건, 사회복지사업들을 병행하고 있다.



3 고산지대 생활 - 교육편 2015. 03 (치앙마이)



활동 설명

로열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역 및 기관을 방문하는것 이외에, 진행된 우리의 첫 수업.
7살부터 초등학교 나이 또래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두가지로 방식으로 진행 되었는데, 첫번째는 쉽게 따라할수 있는 노래와 율동 위주로
수업 하였고, 두번째는 여러가지 색깔의 종이를 이용해 종이접기수업등을 진행 하였다.



3 고산지대 생활 - 교육편
2015. 03 (치앙마이)



태국팀이 느낀점은?

처음으로 수업준비를 했던 활동.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아이들이 잘 따라할수 있을것 같은 활동을 준비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재미없는 활동이 나오면 애들은 지루해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당황했다.
그렇게 우왕자왕 하고 있는데, 피뎀이 우리를 도와 주었다.
아이들이 다시 활동에 참여할수 있게, 재미있게 잘 유도를 해줘서
무사히 활동을 마칠수 있었다.



4 Work Camp
2015. 03 (치앙마이)

활동 설명

태국에서 매년 진행중인 이 워크캠프는 치앙마이의 '샤오힌 YMCA' 와 일본의 '고베 YMCA'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각자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환경문제에 관해 토론토 하고, 그것을 토대로 마을로 들어가 직접 실행해 보는것이 이 캠프의 장점! 이번에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일본 그리고 라온아띠 4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비록 우리는 미리 정해진 스케줄이 있어 마을에 까지 같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같은 또래의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문화를 나눌 수 있었던 캠프!



4

Work Camp
2015. 03 (치앙마이)

태국팀이 느낀점은?

우선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나라 대학생들을 만날수 있고,
그들과 문화교류를 할 수 있어서 좋았으나, 몇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서워크캠프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
두번째는 우리의 퍼포먼스에 관한 아쉬움이다.
우리 퍼포먼스인 사물놀이는 신나고 경쾌하긴 하지만, 처음 본 사람들이 바로 함께하기
는 힘들다. 반면 일본이나, 태국 친구들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닌,
다같이 즐길수 있어서 부러웠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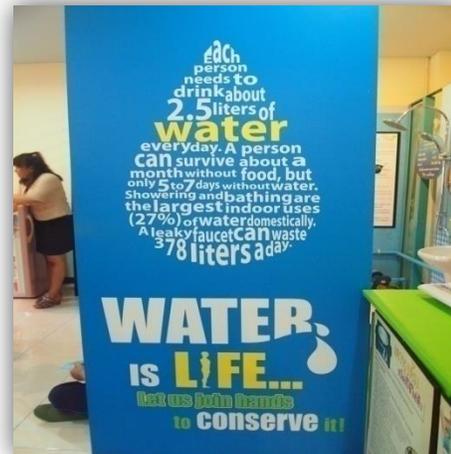
5

Energy Camp
2015. 04 (치앙마이)



활동 설명

치앙마이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에너지교육 캠프로써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묻는것을 시작으로 그에 관련된 교육, 게임, 토론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되었던 활동



5

Energy Camp
2015. 04 (치앙마이)



태국팀이 맡은 역할은?

에너지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게임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신문지 접기 게임과 인간 사슬 게임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그들은 조금 더 끈끈해졌으며

진정한 팀으로 거듭났다는 소문이 들린다.



5

Energy Camp
2015. 04 (치앙마이)



태국팀이 느낀점

좋았던 점 : 전지 하나와 물건 하나를 던져주고, 이 상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가? 를 그려 보라는 활동, 아이들 자신이 실제로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기 까지 얼마나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드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며 열띤 토론을 펼친 활동으로써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다.

아쉬운 점: 모든일정이 태국어로만 진행 되어서, 우리가 기획한 활동 말고는,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는지 잘몰랐다는 점. 거의 눈치로 알아듣는?

5

Energy Camp
2015. 04 (치앙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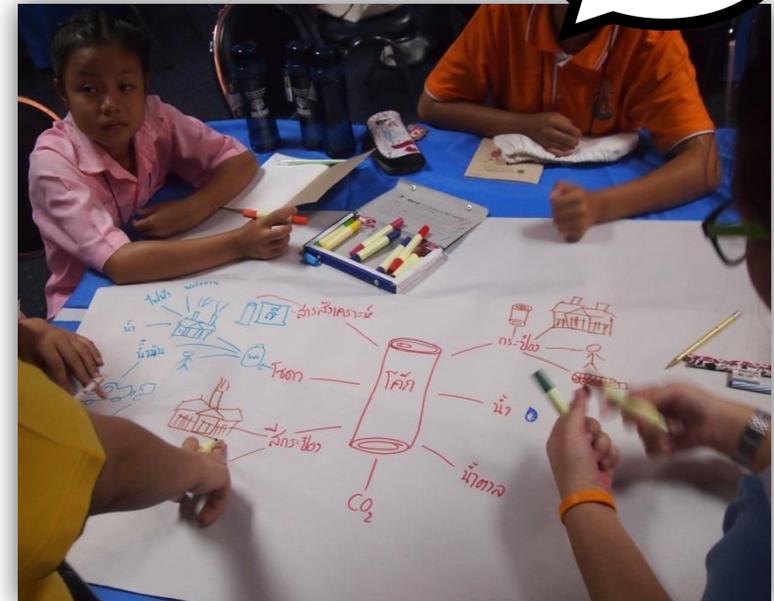
피자빵 팀



원료는 어디서 오는가?



콜라팀은 토론중



6

넬서리센터 방문
2015. 05 (치앙마이)



활동 설명

태국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써, 주로 식물의 종자 및 묘목 등을 연구하고, 분양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곳. 이곳 넬서리센터에서 우리는 태국에 얼마나 다양한 식물들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재배하고 수확하는지 등 농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배운 활동

(예) : 연구실 견학, 잡초 뽑기, 흙 담기, 나뭇잎 찌르기, 종자심기, 열매 수확

6

넬서리센터 방문
2015. 05 DAY - 1 (치앙마이)

오리엔테이션



견학중



실습중



6

넬서리센터 방문
2015. 05 DAY - 2 (치앙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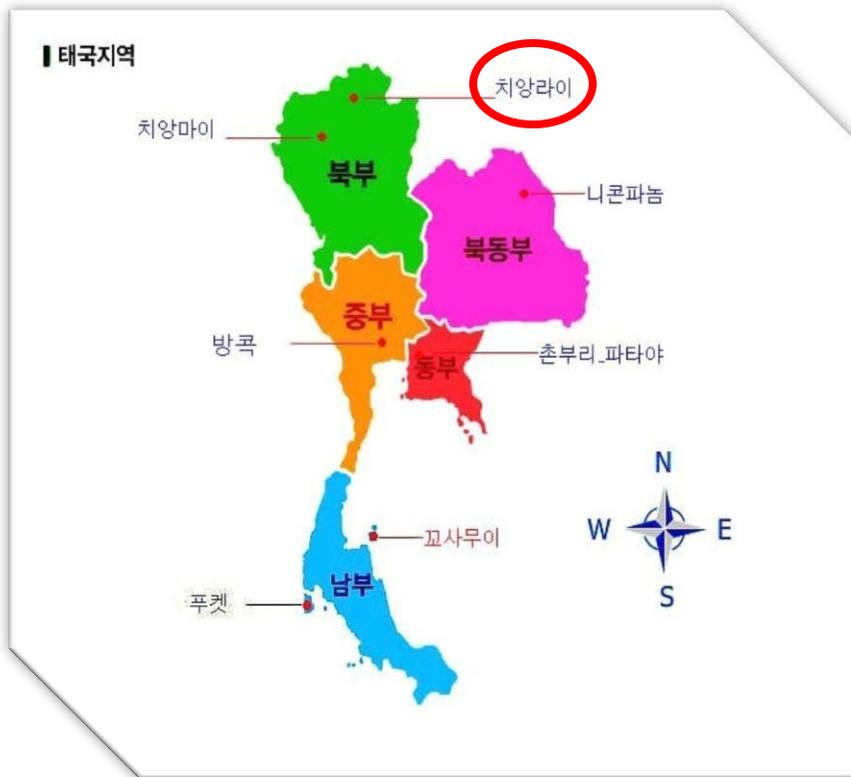
태국팀이 느낀점

좋았던 점 : 우선 태국정부에서 이런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되었고, 몸은 힘들긴 했지만, 왓지 마을 가면 써 먹을수 있는 스킬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재밌었다. 그리고 팀원중 한명은 가장 좋았던 썸땀을 만드는 법을 배울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한다.

아쉬운 점: 원래 일정에서 갑자기 변동되어 활동 기간이 많이 줄었다는 점.
점심시간 말고는 휴식시간이 없어, 뜻하지 않게 고강도 노동활동이 된 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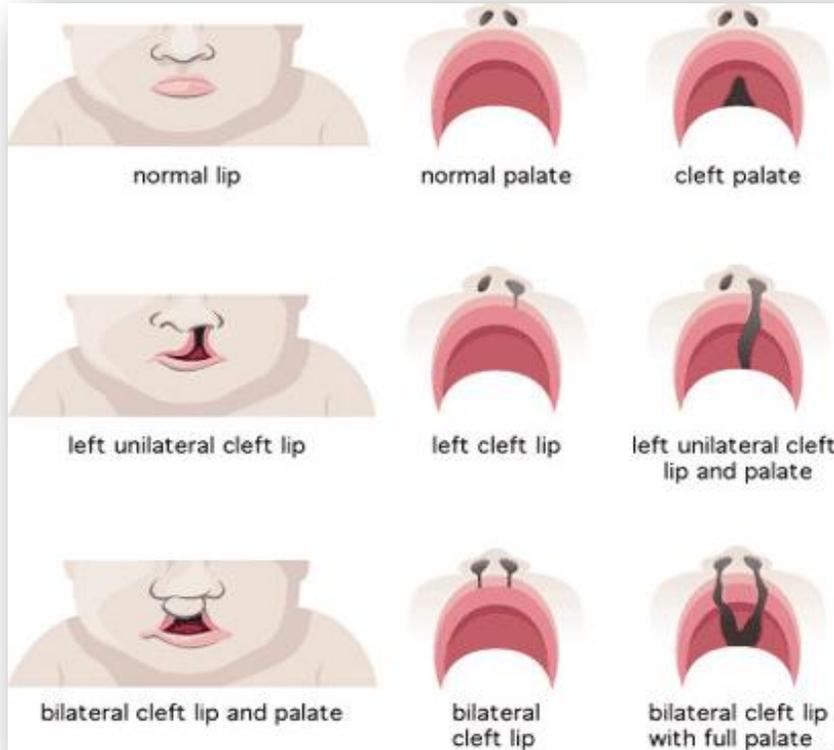
치앙라이 활동 2015. 04 (소개)



활동 설명

치앙라이는 태국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이다.
원래 우리가 있는 산캄핑에서는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며
2주라는 기간 동안 치앙라이YMCA에서 우리가 주로 한 활동은
CLP프로젝트 및 **YMCA타운센터 보조** 역할이었다.

2

CLP Project 활동
2015. 04 (치앙라이 - CLP)

CLP가 뭘까?

Cleft lip & Palate의 약자이고 한국어로는 '구순구개열'이라고 불리는 장애를 뜻한다. 얼굴에서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의 하나로, 얼굴이 만들어지는 임신 4~7주 사이에 입술과 입천장을 만드는 조직이 적절히 붙지 못해서 생기는 입술, 입천장의 갈림증이다.

CLP Project는 뭐지?

CLP 환자는 1000명당 한 명 꼴로 나타나며, 한국에서는 사후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큰 문제가 없지만, 아직 태국이나 동남아 지역은 많은 아동들에게서 이 질환이 발생되고 있고, 비용과 후 처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이에 치앙라이Y는 태국 아동을 포함해서 근처의 미얀마, 라오스까지 영역을 확장해 환아들을 수술까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아동이 성장하여 청소년이 될 때 까지 케어해주는 데 이를 CLP 프로젝트라 한다. (애니메이션 등장 효과 + 사진전환 효과)

1 CLP Project 활동
2015. 04 (치앙라이 - 가정방문)



CLP 환자 가정 방문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우리는 CLP 환아들의 가정을 방문했다. 아동들은 이미 몇 년 전에 수술이 완료된 친구들이고, 치앙라이Y에서는 이 아이들의 지속적인 케어를 해주기 위해 간간히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다. 치앙라이 병원근처 시내에 사는 아이부터, 산을 굽이굽이 타고 올라가서 어렵게 만난 아동들까지,

가정방문을 통해 우리는 총 7명의 아이들과 만나고 이야기 할 수 있었다.

Raonatti 13 Thailand team Final Report

2015

1 CLP Project 활동 2015. 04 (치앙라이 - 가정방문)



1 CLP Project 활동
2015. 04 (치앙라이-스피치테라피)



스피치테라피 센터 방문

CLP환자들은 입술근육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수술후에도 부정교합에 의해 발음이 새는 현상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CLP환아들을 대상으로 진찰 및 발음교정을 하고 있다.
전문 상담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수술 후 상태는 어떤지 진찰 하고
진찰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1

CLP Project 활동
2015. 04 (치앙라이-스피치테라피)



1 CLP Project 활동
2015. 04 (치앙라이-패밀리캠프)



CLP 패밀리 캠프

이곳 치앙라이 YMCA에서는 매년 CLP환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패밀리캠프를 개최한다.
부모님을 대상으로는 전문가와, 의사분들께서 강의를 해주고,
아동들은 언어활동에 어려움이 없는지, 수술 후에 다른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체크 받은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패밀리 캠프에서 **라온아띠의 주된 활동**은 CLP환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교류 및 다양한 놀이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것이었다

1

CLP Project 활동
2015. 04 (치앙라이-패밀리캠프)



태국팀은

총 3개의 활동을 준비하였으며 아이들은 시간 별로 각각의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활동을 기획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방에서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준비 하였다.

1번 방 (주현 & 건휘)

한국의 전통놀이인 딱지를 태국에 전파함으로써 태국아이들과 친숙한 문화교류를 시도

2번 방(다정 & 피뵘)

아이들과 함께 입체 가면 만들기 / 먹을 수 있는 밀가루로 만드는 클레이 점토 클래스

3번 방(지원 & 피메우)

손가락을 이용한 물감놀이 / 점미술로 만드는 행운목걸이 클래스

1

CLP Project 활동

2015. 04 (1번방 - 딱지)



1 CLP Project 활동
2015. 04 (2번방 - 가면 & 클레이)



1 CLP Project 활동
2015. 04 (3번방 - 물감&점미술)



1 CLP Project 활동
2015. 04 (치앙라이-펀드레이징)



펀드레이징

치앙라이 워킹스트리트(야시장)에서 CLP활동을 위한 펀드레이징을 진행 하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물놀이를 하면서 홍보를 하면 모금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산캄핑에 있는 악기와 옷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했지만...
모금활동 당일 장소상의 문제로, 사물놀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게다가 갑자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몰려와서
거의 10분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야시장 상인들까지 모두 장사를 접는 상황이 발생한다.

비록 30분밖에 펀드레이징을 못하긴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 해주어서 정말 의미있고 즐거운 활동이었다.

1

CLP Project 활동 2015. 04 (치앙라이-펀드레이징)



2

Town Center 활동
2015. 04 (치앙라이 -YMCA타운센터)



활동 설명

치앙라이에 위치한 YMCA기관으로써,
유치원 및 랭귀지스쿨 등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
평일 & 주말 모두 아이들이 북적북적해서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곳!**

이곳에서 우리 태국팀은

일일 선생님이로 수업을 만들어서 진행 하기도 하였고,
창고정리, 건물 및 책상 도색등 여러가지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2

Town Center 활동
2015. 04 (건물외벽 도색작업)



건물외벽 도색작업

타운센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작업은
유치원의 건물외벽을 하얀색으로 다시 도색하는 작업이었다.
우리 모두 작업에 미숙해서 였을까, 도색하는 도중 부분부분 창틀까지 칠해버리는
사고도 발생하긴 하였지만, **하루종일 같이 열심히 한 덕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도색 작업

덤으로 도색장인님에게 여러가지 노하우도 전수 받을수 있었다!

2

Town Center 활동

2015. 04 (건물외벽 도색작업)



2

Town Center 활동

2015. 04 (타운센터 창고정리)



타운센터 창고정리

분명 처음에는 “교실정리” 라고 하였다. 분명..
그 전날까지의 상상은 아이들이 쓰는 책장이나 교실을 대청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했던 상상과는 달리 도착해서 스텝을 따라간 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그곳은 무려 30년이나 청소를 하지 않은 곳으로서
이번이 아마도 최초의 청소였을 듯하다.

하루 온 종일 먼지와 씨름하라, 물건 옮기랴 고생하긴 했지만
막상 하고나니 Befor & After가 너무 명확해서 뿌듯했던 활동.

하지만 너무 충격과 감동이 커서 었을까..?

청소 전 & 후 사진을 찍지 못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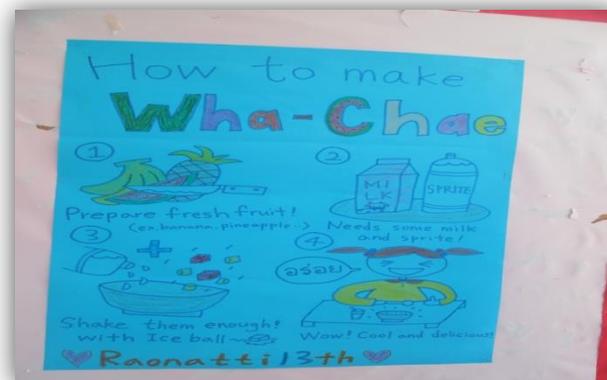
Town Center 활동

2015. 04 (타운센터 창고정리)



2

Town Center 활동 2015. 04 (한국음식 나눔)



2

Town Center 활동

2015. 04 (일일교사 - Raonatti Class)



Raonatti Class

타운센터 활동중의 하나로써
수업전 영어보다는 한국적인 수업을 준비해 달라는 기관의 요청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지루하지 않는 게임형식이면서, 어릴때 우리가 많이 해봤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 할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바람개비, 개구리접기, 자치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조금더 회의를 거친 끝에,

**아이들이 직접 만들수 있고
계속 가지고 다니며 애들끼리 게임도 할 수 있는 딱지놀이로 선정되었다.**

수업 내내 아이들이 즐겁게 가지고 놀았고 수업이 끝나고도
마당에서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꼈던 활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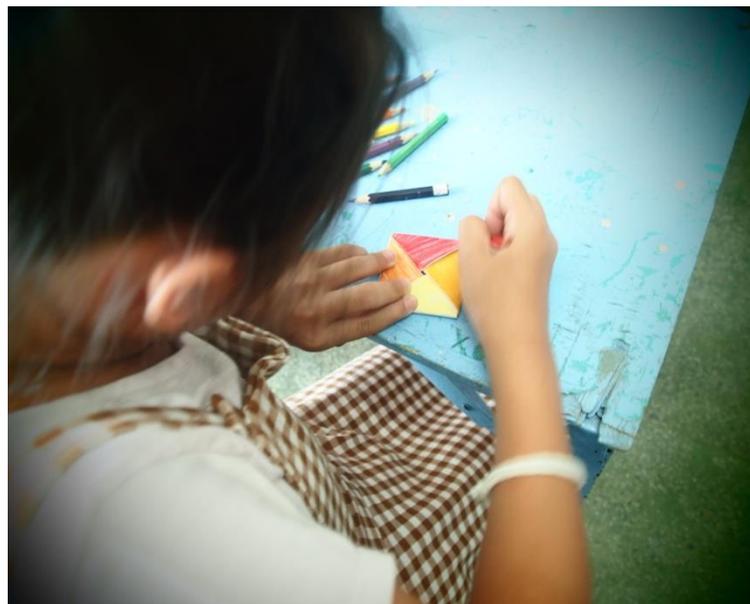
Town Center 활동 2015. 04 (Raonatti Class 준비과정)



2

Town Center 활동

2015. 04 (일일교사 - Raonatti Class)



2

Town Center 활동

2015. 04 (그외 일상)



Raonatti 13 Thailand team Final Report

2015

2

Town Center 활동
2015. 04 (그외 일상)



2

Town Center 활동
2015. 04 (치앙라이)



치앙라이에서 태국팀이 느낀점

팀안에서 가장 사건사고가 많았던 시기 그리고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기.
안하던 회의를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하고
CLP에 대해서 처음 알게된 계기이기도 하였다.

타운센터에서는

태국에 와서 처음으로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게 된 시간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수업에서는, 수업진행의 재미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한국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눠 먹으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챙겨주시던 치앙라이Y스텝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호드지역)



마을 홈스테이 생활

라온아띠 13기 태국팀이 앞으로 두 달 동안 살게 될 "탄느아 마을"
한국인을 접하는 게 처음이라는 마을.
이른 아침부터 생활이 시작되는 마을.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오토바이를 혼자 모는 마을
사투리가 심하지만 배우는 재미가 쏠쏠한 마을.

우리가 사는 마을 "너란 반딧느아"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가족소개)



썸퍼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썸퍼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 썸퍼 이렇게 4가족이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바로 앞 집에서
국수집을 하셔서 매일 아침 국수를 먹고 등교를 하는집.

그리고 담장이 없어서 저녁이 되면 **만남의 광장**이되는 썸퍼네.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가족소개)



꼬손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름 : 피어, 직업: 나무꾼

특이사항: 평소 과묵하시고, 말이 별로 없으심. TV를 자주 보시고, 집 안에서 흡연을 즐기심. 이제까지 두 마디의 대화를 나눴음. 그 중 첫 번째가 (뉴스를 보시면서) “저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름: 메에, 직업: 선녀

특이사항: 낮을 많이 가리시지만 보이지 않게 잘 챙겨주심. 낮을 많이 가려서 평소 옆집 할머니나 동생을 통해 말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가족소개)



동생 이름: 마이, 나이:14세, 직업: 학생

특이사항: 한창 중2병에 걸려 있어 그 무엇보다 자신의 근육을 제일 좋아하는 듯 보인다.

다음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NET'을 좋아한다.

기타연주를 좋아해 나와 취미가 겹쳐 매일 밤 같이 기타를 친다.

또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많아 한국 노래를 벌써 하나 배웠다.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가족소개)



덕깨우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덕깨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언니, 동생 이렇게 7식구입니다.
그리고 옆집에는 친척 할머니가 사십니다.

이 마을은 북부지방인데다 라오스 사람들도 있어서 사투리가 좀 심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태국어로도 소통하는 게 어려웠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와 동생이 간단한 영어는 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수월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답니다.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가족소개)



동생 Ming은 15살, 중3이고 Tannua 중학교에 다닙니다.
학교에선 엄청 진지하고 시크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챙겨주는 귀여운 동생입니다.

학교에서 분낙(주현)과 서로를 놀리기에 바쁜 환상의 콤비입니다.
동생은 과자를 좋아하고요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해서 자기 전에
노래를 틀어놓고 같이 듣습니다. 저에게 불교노래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가족소개)



분낙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버지 : 촌깨우(짠 하는것) 와 술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어머니와 붙어 다니십니다♥
밖에서는 친절하시고, 집안에서는 자상하신!
50대 중반이라는 나이와는 다르게 애교가 많으신 분낙네 아버지!



어머니: 항상 인자한 미소로 대해 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호기심이 정말 많으십니다. 집 마당에서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고 있을 때면, 어디 선가 나타나셔서 자세히 보시고 계시다가, 운동이 끝나면 와서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저 처럼 드라마를 엄청 좋아 하셔서 학교 끝나고 저녁 먹을 때면 드라마를 2개정도 같이 봐주시는 분낙네 어머니!



할머니: 한국으로 치면 발음이 완전 사투리라서, 솔직히 잘 알아듣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궁금한 것은 못 참으시는 성격!
운동 할 때 아령을 들어보시기 도 하고, 이것 저것 많이 물어보시는 할머니.
가끔 동생과 장난으로 몸싸움도 격하게 하시는 분낙네 할머니!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가족소개)



동생 이름: 빅 / **나이:**15세 / **직업:** 중학생

영어가 거의 안되긴 하지만
어떻게든 바디랭귀지를 써서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엄청난 바디랭귀지의 소유자.**

까무잡잡한 피부 때문에, 태국인 보다는 흑인에 가깝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웃는 게 매력적인 친구. 학교에서는 너스레 좋은 성격과, 뛰어난 작업 실력 덕분에 여러 선생님에게 불러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하루의 주요 일과. 학교가 끝난 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축구!

축구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력 또한 짱 짱 맨!**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반딤느아 학교소개)



반딤느아 학교소개

Bantannua 학교는 Tannua 마을에 위치한
전교생 329명, 선생님 20명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에는 식당, 도서관 그리고 학생들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밴드부 실이 있고
하교길을 즐겁게 해주는 학교앞 식당 겸 매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태국팀은 학교 앞에서 파는 간식을 좋아합니다.

정말로요. 단골입니다.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반딧불이 학교소개)



도서관



식당



밴드실



매점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반딧노아 학교수업)



반딧노아 학교수업

하루 세 시간씩 초1 ~ 중3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및 한국어 수업을 진행

한국어 수업은 기본표현과 숫자, 간단한 자기소개 등으로 수업방향을 잡았고,
기본표현으로는 '안녕하세요', '고마워', '미안해', '잘 가' 등을 시작으로
자기소개까지 수업을 하였으며
숫자수업은 1부터 1만까지 한국어로 어떻게 읽고 쓰는지 알려주었습니다.

Ps. 칠판 한 켠에는 **오늘의 한국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간단한 일상표현을 가르쳤습니다.

Raonatti 13 Thailand team Final Report

201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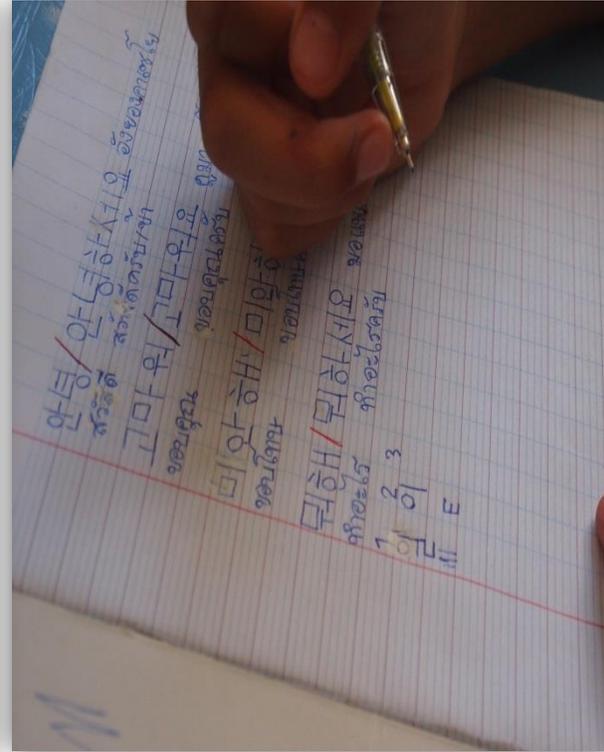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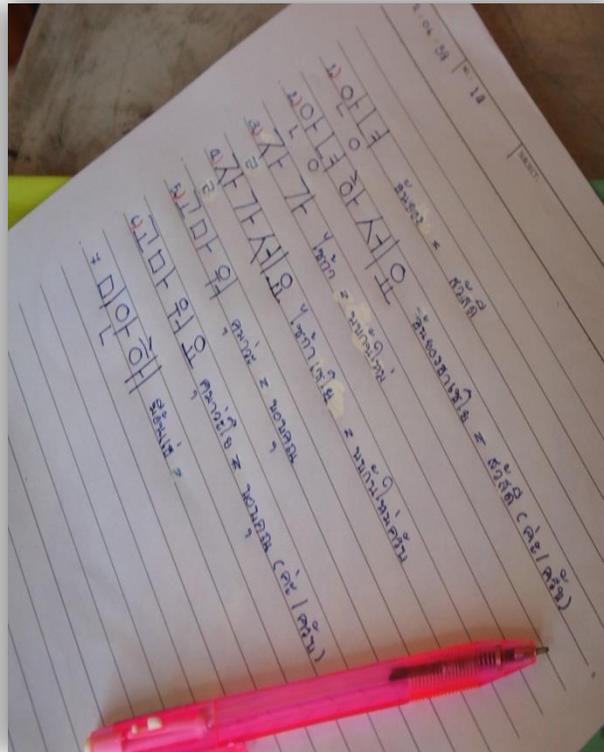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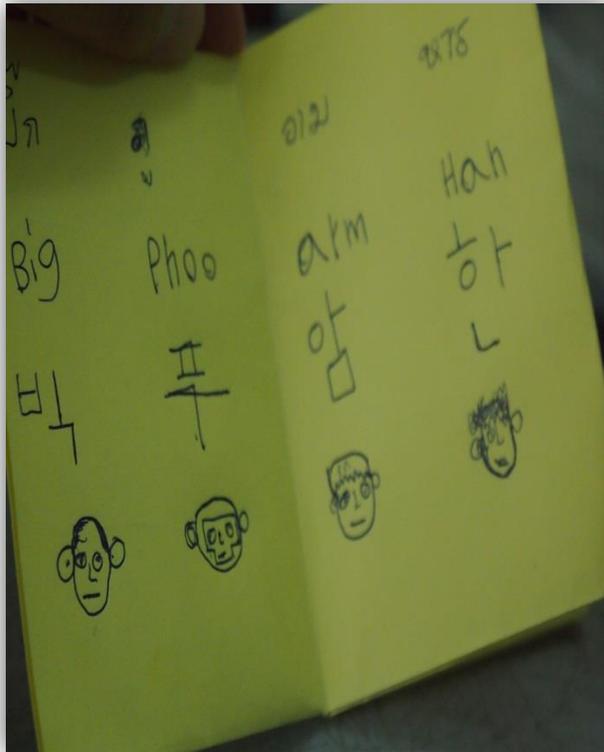
마을 홈스테이
2015. 04 (반딧불이 학교수업-한국어)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반딧노야 학교수업-한국어)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반딧불이 학교수업-문화소개)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반딧노야 학교수업-문화소개)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반딧노아 학교수업-반딧마블)



반딧마을 게임 진행

언어 수업과 문화 수업만 하면 아이들이 자주 지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게임형식의 수업.

아이들이 잘 아는 곳 위주로 지명을 선정하였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미니게임을 섞어서 진행하였습니다.

Ps. 우리의 원래 의도는 앞서 배운 화폐수업의 연장선으로 **복습 겸 게임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으나

아이들의 **경쟁심 과열로** '게임'만 재밌게 하다 끝난 수업.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반딧노아 학교수업-반딧마블)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반딧노야 학교수업-350PPM)



350PPM 환경교육

13기 태국팀은 이번 350PPM 캠페인의 주제를 '쓰레기'로 잡았다.
초등학교 5학년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350PPM의 의미와 환경파리가 진행되고 있는 전지구적 사례들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쓰레기별 색칠 시간을 배우며 분리수거의 중요성도 가르쳤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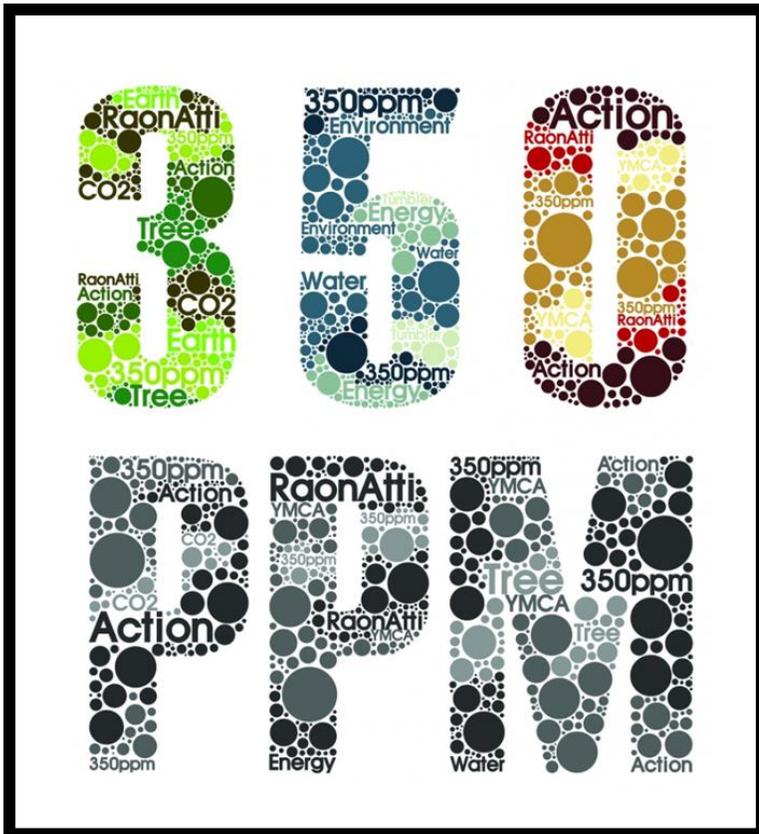
마을 홈스테이
2015. 04 (반딧불이 학교수업-350PPM)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반딧노야 학교수업-350PPM)



욕심이 과했던 우리의 350PPM

1. 원계획은 무엇이었나?

- 저희의 원래 계획은 6월 5일을 포함한 한 주 동안 각각의 날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의 일주일'이라는 모토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기, 쓰레기, 물, 이산화탄소(2일)를 주제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캠페인은 교육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기획했었습니다.

2. 왜 계획이 틀어졌고, 새로 짠 계획은 뭔가?

-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마을에 들어갔으나 우리가 기획한 캠페인과 마을상황이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규모 수정작업을 거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느낀 '쓰레기'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전지구적 사례를 알려주고, 쓰레기별 썩는 시간을 교육함으로써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분리수거통을 리폼하고, 직접 분리수거를 해보는 활동들을 기획했습니다.

3. 왜 활동 활동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가?

-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이었습니다. 밀린 보고서 작성과 학교 수업 준비 등으로 바빠서 결국 교육 수업만 진행하고, 분리수거통 리폼 등과 같은 활동 수업은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각자의 에피소드)



덕깨우의 이야기

스승의 날

태국에서는 스승의 날 아이들은 모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절을 하는 전통이 있다. 우리도 이번에 반딧느아학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정말 유치원생부터 중3까지 모든 아이들이 입을 모아 선생님을 위한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음이 몽클했다.

저 작고 예쁜 아이들의 입으로 노래를 부르고 불경을 외우는 것이 너무 대단했다. 다시 한 번 불교국가의 신비로움을 느꼈던 시간이었다.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각자의 에피소드)



분낙의 이야기

원래 나의 꿈은 유치원 원장님 이었다.
공부를 부지런히 하지 않아서 그 꿈은 잠시 접게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아이들을 좋아한다. 정말!
그런 나에게 있어, 학교 앞 유치원은 천국이나 다름없다.
그 작은 꼬맹이들이 "I love you ~" 라고 외치며 달려와서 품에 착! 하고 안길 때 면
내 기분은 뽕뽕 뜬다
아빠가 된 기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렇다.

요새 나는 얼른 딸 바보 아빠가 되고싶다.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각자의 에피소드)



꼬손의 이야기

0000년 00월 00일 꼬손이의 일기

제목: 개미라면

한 달 동안 묵혀뒀던 짜라면을 꺼냈다. 아닛! 내 눈 앞에 펼쳐진 라면 안 개미왕국!
훗! 이젠 익숙해질 때도 됐지... 꽤 씹하긴 했지만 한 친구도 다치지 않게 집으로 돌려 보냈다.
금도끼로 나무를 패고, 불을 지펴 라면을 끓여 먹었다.
허영만 아저씨도 울고 갈 '개미라면'의 맛이란...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일상사진)



1

마을 홈스테이
2015. 04 (일상사진)



2

또이따우학교 이야기

2015. 04 (호드지역)



도이따오 학교 이야기

산캄펑 YMCA Director인 P'pare의 연으로 만나게 된 도이따오 학교.
반딧느아와 차로 30분 거리이고, 학생수도 700명 정도로

학생수도 반딧느아 스쿨에 3배나 뒤 던 아주 큰 학교.

이곳에서는 매 주 월요일 마다 각자 5시간씩

한국어 수업과 **한국문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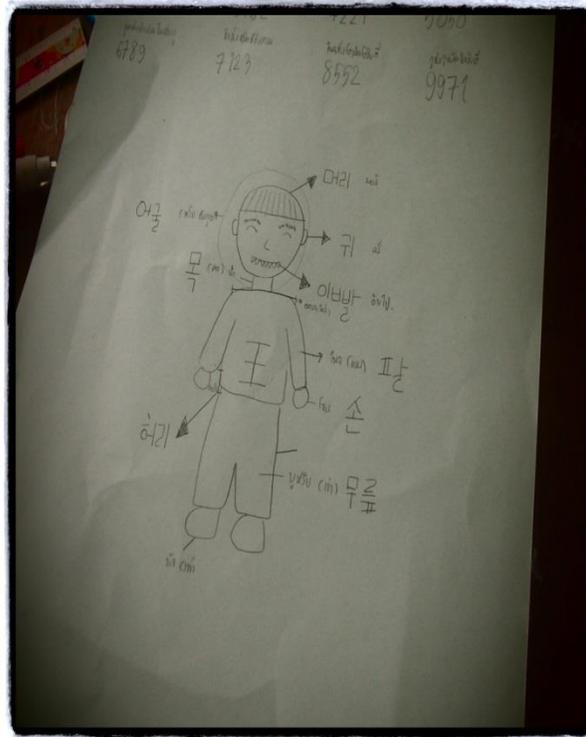
2

또이따우학교 이야기 2015. 04 (호드지역)



2

또이따우학교 이야기
2015. 04 (호드지역)



2

또이따우학교 이야기

2015. 04 (호드지역)

학교생활을 하면서 태국팀이 느낀점

1. 예의가 바른 아이들

→ 반딧눈아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써주고 선생님이로 우리를 대해 주었다.

2. 학교 급식 시스템

→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았다. 대학교 학식처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점!

3. 아이들의 높은 학업수준

→ 아이들이 대부분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간혹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의사소통하기 수월했다.

4. 높은 수업참여도

→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어서 수업참여도가 높았다. 심지어 매 수업시간마다 질문을 할 정도로 열의가 높았다.

5. 선생님들의 참여도

→ 수업에 1늦게 들어오시거나,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면 급히 우리에게 수업을 맡기고 자주 사라지시던 선생님들.

6. 너~무 유동적인 스케줄

→ 라온아띠와의 아무런 상의 없이 당일에 우리의 수업이 생기고 없어지는 등 스케줄이 너무 유동적이었다.



나에게 있어 지난 5개월은?



Thank you so much
for
My family
Sankampeng YMCA

